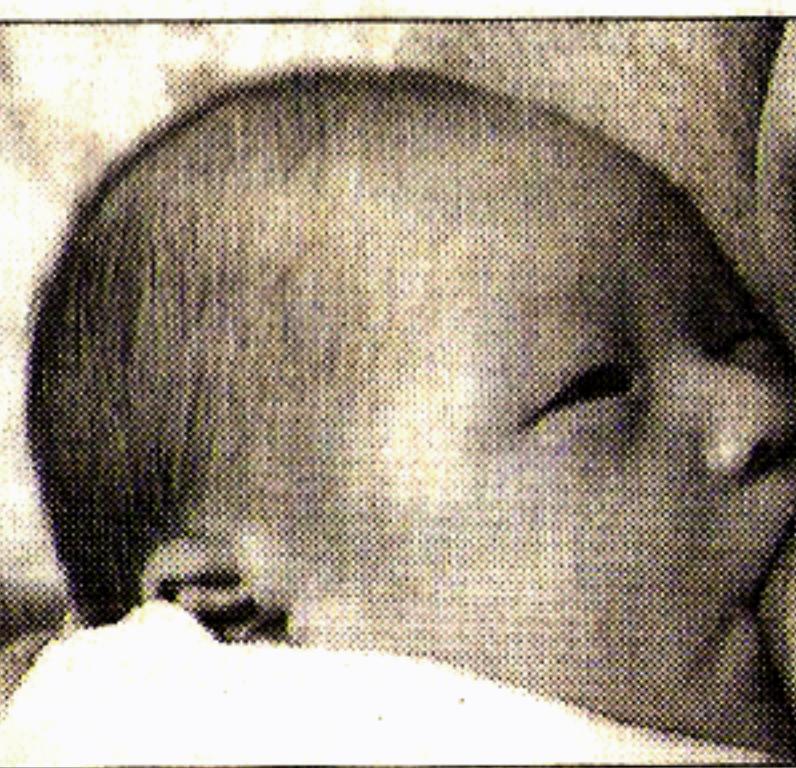


### 산모·태아중심 출산위한 '폭력없는 탄생' 모임

아기를 낳으려 병원 분만실로 들어갈 때 대부분의 여자들은 '내가 살아서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한다. 아이를 기다렸던 임산부에게도 임신은 설레임 가득한 행복만은 아니다. 죽음까지도 각오하게 만드는 힘든 과정의 시작이다. 특히 첫 애를 낳는 두려움은 임산부가 아니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공포이리라.

임산부들은 이 어려움을 아기를 위해 참는다. 아기만 행복하다면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출산과정은 쉽지 않다. 마음대로



움직이거나 소리를 내는 것도 우박지르는 의료진, 아기가 나오자마자 엄마로부터 떼어내는 병원, 혼자만 겪어야 하는 외로운 출산, 병원시간표에 맞춰서 아기를 낳는 듯한 불안감 등등이 임산부를 더욱 지치게 한다. 엄마가 힘들 때 뱃속의 아기가 행복할 수 있을까. 아니 아기는 과연 이렇게 태어나도 좋은가. 이 같은 자각이 일어나면서 행복한 출산, 인권분만을 이야기하는 목소리들이 높다. '폭력없는 탄생'은 엄마와 아기를 위한 출산문화를 가꾸기 위해 생겨난 젊은 주부들의 모임이다.

## 행복하게 낳을 권리·

## 편안히 태어날 권리 찾아서

**이** 모임이 생긴 것은 올 2월. 조산원에서 친정엄마와 남편이 지켜보는 가운데 편안하게 첫발 하린이(16개월)를 낳은 이향지(28·경기 성남시)씨가 인터넷에 '폭력없는 탄생'(cafe. Daum.net/easybirth)이라는 카페를 만들었다. 카페는 8개월만에 회원이 580명으로까지 늘어났다.

'폭력없는 탄생'은 프랑스 의사 프레드릭 르뵈이에가 아기 중심의 분만법을 제시하기 위해 1950년대에 쓴 책 제목이기도 하다. 이 책에서 르뵈이에는 눈부시게 밝은 조명과 시끄러운 병실에서 태어나야 하는 것은 아기들에게는 고통 그 자체면서 자궁처럼 어둡고 조용한 곳에서 아기를 낳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아기가 나오자마자 뱃줄을 자르고 거꾸로 들어서 영咛이를 끄는 뒤 엄마로부터 떼어놓는 것은 폭력이라며 아이를 낳은 후에는 가장 먼저 엄마 품에 뛰어 젖을 물릴 것, 뱃줄을 즉시 끊지 말 것, 뱃줄을 끊은 후에는 양수처럼 따스한 물에 넣어 아이가 서서히 중력에 적응하게 할 것 등을 제시했다. '폭력없는 탄생' 모임은 여기에 보태 가족들이 출산에 동참할 것을 권한다.

"하린이를 갖고 출산 관련 책을 많이 읽었다. '폭력없는 탄생'과 역시 프랑스 의사인 미셸 오당이 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출산', 자연식운동가인 최민희씨가 쓴 '황금빛 뜻을 누는 아이' 같은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기가 편하게 나올까 고민을 많이 했다." 그래서 이씨가 찾아낸 것이 조산원이었다. 조용하고 아늑한 곳에서 가족과 함께 출산을 맞는다는 것이 그의 조건에 다 맞았다. 첫아이였던 민희는 출산과 함께 출산을 맛보는 것이다.

병원과 조산원에 전화하며 저울질을 계속 하던 그는 병원이 출산에 대해 겁을 주는 반

면 조산원은 "산모들의 응급상황이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다. 징후가 오면 종합병원으로 보내니 걱정말라"고 도와주는 태도에서 조산원을 선택했다. 그가 하린이에 대해 자랑스러워 하는 것은 "동네 어른들이 '아이 숨소리도 들리지 않는다'고 할 만큼" 순하다는 사실. 그는 이것이 편안한 탄생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폭력없는 탄생' 회원들은 무엇보다 자연 분만 지지자들이다. 이들이 조산원을 선호하는 것은 자연분만에 병원보다 조산원이 적극 적이기 때문이다. 가족과 함께 하니까 불안 감이 덜한 것도 큰 이유이다.

### 어두운 조명·탄생직후 모유·탯줄 천천히 절단등 자연의 순리 따르는 조산원서 가족과 함께 분만

#### "회음·제왕절개 등 병원중심 출산문화 바꿔야죠"

복음이(12개월) 엄마 김현주(30·경기 안산)씨는 병원을 갈까 조산원을 갈까 고민했던 차에 양수가 터져서 상담하던 조산원으로 달려왔고 시현이(6개월) 엄마 이시애(26·경기 안산)씨는 병원을 다니다가 막달이 되도록 분만에 대해서 차근히 말해주지 않자 조산원을 선택했다. 이시애씨의 경우 병원에서는 계속 '애가 머리가 크다'며 은근히 제왕절개를 권했는데 그는 회음열상조차 입지 않고 시현이를 낳았다. 조산원에서는 회음절개를 얹지로 하지 않기에 가능했다. 회음절개는 태아가 머리를 내미는 순간 산모의 아랫도리를 메스로 잘라줘 태아가 빨리 나오도록 하는 조치. 병원에서는 분만의 당연한 과정으로 해오고 있다.

시현이를 받은 김옥진(42·경기 안산 아기탄생 조산원)씨는 간호사 경력 20년의 조산사. 그도 병원 분만실에서 근무할 때는 회음절개나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산모에게 자궁수축제를 주사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조산사로 활동하면서 회음절개를 하지 않자 병원에서 찢는 정도보다 훨씬 적게 회음열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다. 또 태어나자마자 아기가 엄마의 젖을 빨면 그 순간부터 자궁수축이 일

어나니 약제가 필요없었다. 그는 "건강한 산모라면 자연의 흐름에 맞춰서 스스로 아기를 낳을 줄 안다. 의료진은 다만 그걸 돋는데 그쳐야 한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분만 현실은 의료진의 편의대로 임산부들의 행동을 제한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김씨가 받은 아기 중에는 역아도 있다. 첫 애를 자연분만으로 낳은 서은희(34·서울 은평구 불광동)씨는 둘째가 거꾸로 떴다며 병원이 제왕절개를 권유하자 조산원을 찾았다. 서 씨가 자연분만을 고집할 수 있었던 것은 친정 어머니의 경험이 한 몫을 했다. 서씨의 어머니 이락순(66·은평구 갈현2동)씨는 "거꾸로 나



'폭력없는 탄생'의 회원들은 한결같이 젖으로 아기를 키운다. 애 다섯이 한 자리에 모여서 몇 시간을 함께 해도 칭얼대는 소리가 거의 없을 정도로 아기들이 순하다.

수련을 거친 사람에 한해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대한조산협회에 따르면 2003년 6월말 현재 전국의 조산사는 8,990명. 이 가운데 1,636명이 조산사로 협회에 등록·활동중이며 조산원은 104곳에 정도가 있다. 나머지는 분만 전문병원에서 조산사로 활동하고 있다.

물론 병원이라고 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조산원이라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병원 중에도 산모와 아기 중심의 출산을 돋는 병원이 최근 들어 늘고 있고 성급하게 아이를 받는다고 했다가 브이백(제왕절개를 받은 여성의 둘째 아이를 자연분만하는 것)을

해서 사고를 일으킨 조산원도 있다. 출산비는 양쪽 모두 17만원에서 40만원으로 큰 차이가 없다. 조산원이나 병원마다 질이 천차만별이겠지만 조산원이 산모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연분만에 더욱 적극적이라고 회원들은 보고 있다.

이향지씨는 "병원이나 조산원에 대해서 평가하는 작업도 해야 할 것 같은데 아직은 역부족"이라며 "이런 모임에서 엄마들의 이야기가 좀더 큰 목소리를 내면 출산 환경 전체가 서서히 바뀌지 않겠느냐"고 기대했다.

hssuh@hk.co.kr



첫 애와 남편, 친정어머니와 함께 분만을 함께 하면 진통도 그다지 고통스럽지 않다.

### 전국 15개 병원 모여

#### 인권분만운동 이끌어

병원 가운데도 산모와 태아 중심의 분만을 지원하는 인권분만 운동이 일고 있다. 개업산부인과의들이 모여 2001년 6월에 만든 인권분만연구회(회장·김상현 beautybirth.com)도 그 중 하나이다.

이 연구회 회원 병원은 ▲ 자연분만을 많이 하자 ▲ 모유수유를 시키자 ▲ 산모를 교육시키자를 기치로 산모와 태아를 위한 '인권 분만'을 지키고 있다. 인권분만의 내용은 르뵈이에 출산법과 동일하다.

이 연구회 김상현(53·일산 동원산부인과 원장) 회장은 "아기가 태어나는데 필요한 육시토신 엔도르핀 같은 호르몬은 산모의 대뇌 구피질에서 자연스레 나온다. 산모가 하고 싶은 행동을 못하게 간섭하는 것은 자연스런 산모의 역할을 막는 것이므로 최대한 자연의 순리를 따를 수 있도록 산모에게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아기를 낳도록 한다"고 일리준다.

일산 동원산부인과, 새생명산부인과, 인천 서울여성병원, 인천 준산부인과, 분당 참산부인과, 안산 이지은산부인과, 천안혜성산부인과, 광주 호암산부인과, 진주 고려병원, 익산 제일산부인과, 이천 양정분산부인과, 춘천 인성병원, 한수심산부인과, 해성클리닉, 청주 김석재산부인과 등 15개 병원이 회원으로 있다.